

#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한국도자기 부설 아동·가족 상담센터  
상담원 정미경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영희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Division of Hankook China Company  
Counselor : Chung, Mi Kyung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Kim, Yeong 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mediated by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on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The theoretical model was specified and estimated. Subject of this study consisted of 637 mothers having elementary students(from 5th to 6th grade) drawn from 4 elementary schools in Cheong-ju city.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in childhood had an indirect effect on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mediated by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permissive parenting experience had more strong relationship with maternal depression rather than authoritative parenting behavior. Maternal depression, marital conflict, parenting

Corresponding Author: Mi Kyung, Chung,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Division of Hankook China Company, 230-1 Yuam-dong Sangdang-gu Cheongju, Chungbuk 360-200, Korea Tel: 82-43-253-5400 Fax: 82-43-253-5410 E-mail: mayjin1002@hanmail.net

behavior were directly effected on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Maternal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effected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directly mediated by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 Maternal depression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predicting marital conflict, parenting behavior, and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양육경험(parenting experience), 우울(depression),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양육 행동(parenting), 아동의 부적응(children's maladjustment)

## I. 서론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문제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부적응 문제는 6~15%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과중한 학업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문제로 인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동기 부적응의 문제점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발견에 시간이 걸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되어 문제를 가중시키기 쉽다(Hamberg, 1992).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아동기에 시작된 부적응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교사가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기의 부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arber(1998)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간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는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해주었다. 또한 Eiden, Teti, & Com(1995)은 아동의 부적응행동에 관련된 부모-자녀 관계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평가되며, 현재 어머니가 보이고 있는 양육행동의 질은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어떻게 내적으로 표상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George, Kaplan, & Main(1995)은 어머니가 아동기 때 가졌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이 현재 자녀와의 애착 유형과 66~82%까지 일치됨을 발견하면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현재 심리적 특성이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자녀에게

회귀적으로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랄 때 형성된 정신적 표상이 내면화되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투사되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자녀의 부적응이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아동기 양육경험이나 애착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주요한 이유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아 생의 초기에 형성된 성격특성이 지속되기 때문이다(Thompson, 2000). 부모와의 아동기 양육경험에 대한 회고적 연구에서 자신의 부모를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으로 회고하거나, 거부적으로 회고한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높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부적응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Plantas, Prusoff, Brennan, Parker, 1988). 또한 부모가 적절한 제한이나 애정 없이 방임적이고 허용적인 양육을 했다고 회고하는 어머니는 우울증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삶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우울증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기술과 긍정적인 정서표현이 부족하여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Rutter & Quinton, 1984). 특히 우울한 어머니는 양육기술의 부족으로 아동에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할 경향이 높으며,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아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의 질을 손상시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남소현, 2000). 더욱이 우울증은 지속성이 매우 강하여 환경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대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hitbeck, Simans, Conger, & Wu, 1991).

그러나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쇄될 수 있어 학자들은 결혼생활이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이나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어머니의 정서를 측정하는데 21-45%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지지 받는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경험으로 받은 것들을 상쇄하여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였다(Levitt, Weber, & Clark, 1986).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Krishnakumar & Buehler, 2000).

선행연구는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 형태와 부적응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간에 갈등 수준이 높은 어머니는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덜 지지적이고, 통제적이 되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시하는 경향이 높아 자녀들이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문제를 보여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권위주의적이고 허용적인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세대를 전이하여 어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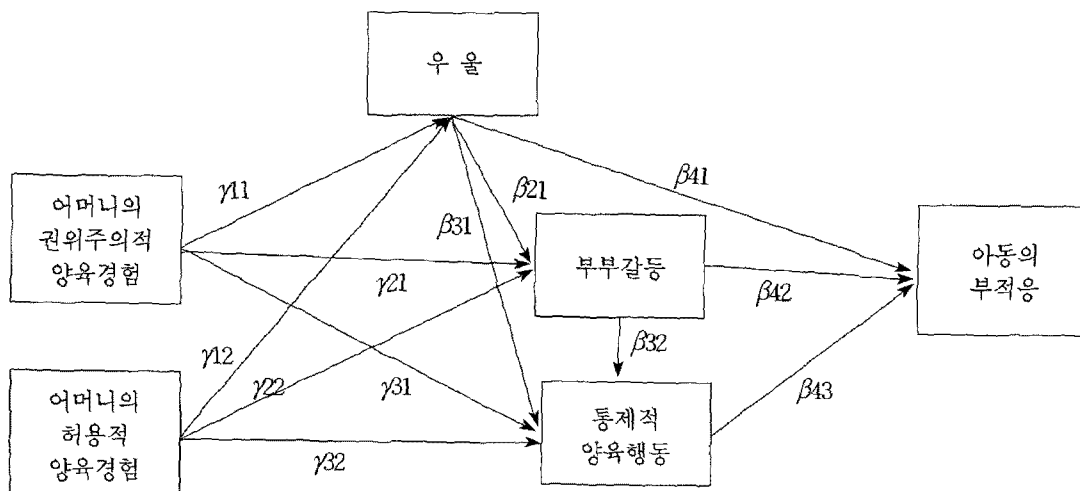
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이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쳐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 본 것에 그치고 있어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어떻게 세대적으로 전이되어 자녀의 부적응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변인 모델 안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세운 이론적 모델의 검증을 통해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한 모델 안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여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세대적인 전이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 연구가설 및 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가설적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



<그림 1>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 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과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자신이 경험한 양육이다.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고 통제하며 아동의 욕구나 민감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과 적절한 제한 없는 방임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불안, 우울, 위축 같은 성격 특성을 형성해주어 대인관계는 물론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hitebeck, Simons, Conger, 1991). 아동기 양육경험과 우울의 관련성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보고 되어 왔으며 우울을 유발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유아기의 불안정 애착에 대한 연구들이다(Easterbrooks & Goldberg, 1990). Bowlby는 애착 이론에서 주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이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주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에 대한 정보를 내적 표상인

'내적 실행모델'로 조직화하는데 이는 부모가 정서적으로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를 이해하며 반응할 때 자녀는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표상하며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적응을 하게 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경험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타인들 또한 신뢰하지 못하며, 자신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표상을 가져 낮은 유능감과 높은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Cicchetti & Toth, 1995).

우울을 발생시키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의 두 번째 관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기 양육경험의 회고적 연구이다. 임상에 있는 우울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인 연구에서는 비임상 집단에 비해 임상 집단이 그들의 부모를 더욱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이며 애정 없는 방임적 허용의 양육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임상 집단 및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부모와 부정적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Plantes et al., 1988). Rubin과 Mills(1991)는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할 때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artin과 Waite(1994)도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절한 제한이나 애정 없이 방임적 허용을 하며 과보호적인 것으로 회고할수록 우울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음을 밝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성인기의 주요 대인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Sroufe, 1988). 부모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제한 없는 허용을 경험하거나 권위주의적 양육을 받은 경험은 성인기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에 손상을 주게 된다. Hazen과 Shaver(1987)는 아동기 부모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 때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회고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갈등 수준이 높고,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Reifman(1986)은 부모와의 경험이 통제적이고 거부적일수록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er 등(1992)은 어린시절 아동기 양육경험과 부부관계의 질을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부부관계의 질이 낮은 집단은 어린시절 부모에게 애정을 부족하게 받고 방임적 허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에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된 개인이 어린시절 아동기 양육경험을 토대로 배우자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성인기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는 어머니가 성인이 된 후 자녀와의 관계인 양육행동이다. 어린시절 부모가 자신에게 보여준 태도나 행동은 자신이 성인이 되어 가족을 생성했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긍정적인 아동기 양육경험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음세대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아동기 양육경험은 인간 성장발달과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정혜승, 2000).

세대간 전이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 역할 수행의 세대간 연속성을 강화와 모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Jorgenson, 1985). 즉, 모델링과 모방을 통하여 아동들은 반사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행동 패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태도와 정서적 반응까지도 쉽게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엄격한 신체적 훈육과 처벌인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Laub과 Sampson(1988)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강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성장한 여성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아동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Simons 등(1993)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강압적인 양육을 받은 어머니는 현재 그들의 자녀에게도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Bowen은 아동기 양육경험을 개인의 자아 분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부정적인 양육경험으로 분화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분화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며 자녀에게 투사하여 더 낮은 수준의 자

아 분화 수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각 세대가 점진적으로 낮은 분화를 가진 개인을 양산함으로써 이들은 더욱 불안하고 한 두 세대 동안 이 과정이 느려지거나 유지되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손상이 어느 선까지 도달하면 부적응이 발생한다고 하였다(Papero, 1990). 그는 부적응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이며, 그 부모의 문제 또한 조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육경험의 영향력은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Bowlby의 애착이론에서도 양육경험과 관련된 세대간 영향력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어머니와의 양육경험에서 자신의 기대 역할이 내면화되어, 이후 성인기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이는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에 따라 성인이 되어 부부관계를 맺는 방식(Scharff, 1996)과 부모가 되었을 때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Bretherton, 1991).

이와 같이 서구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루어진 연구가 적으며 특히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이 가족관계 안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살펴 본 연구가 부족하여 그 영향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 및 아동의 부적응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징은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족한 사회적 기술이다. 우울증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는 친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손상이나 부부관계의 갈등과 같이 빈도 높은 대인관계 갈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Downey & Coyne, 1990). 우울한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며, 불안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보인다. 그리고 성격장애 외래환자, 만성적인 우울증 환자 및 불안장애 외래환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대상을 상실 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가 높았다(West, Rose, & Sheldon, 1993).

우울한 사람들의 부부간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했을 때 우울증 환자가 정상인 배우자에 비해 갈등, 긴장, 부정적 표현을 많이 하였고 대화를 중단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많으며 낯선 사람보다도 배우자와 상호작용이 더욱 부정적이었다. 우울한 사람들의 인지적 왜곡과 부정적 평가와 함께 과대 혹은 과소평가, 감정표현의 부족 등이 부부관계에서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Hammen, 1992). 그리고 우울증이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부부갈등이 호전된다는 결과(Hinchliff et al., 1978)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우울증의 대인관계 특성에 관한 이론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와 자녀의 부적응 문제 간에 작용하는 일차적 요인을 어머니의 양육기술의 부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Downey & Coyne, 1990).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두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가족의 상호작용에서는 우울한 어머니가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더 부정적(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이었으며 긍정적인 감정표현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반응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흔히 어머니로부터 방임, 적대감, 거부당하므로 애정을 충족시킬 기회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으로 적절한 양육행동이나 인지적 노력을 덜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더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Fendrich, Warner, & Weissman, 1990). 더욱이 자녀와의 갈등을 지나쳐버리거나 회피, 혹은 그 반대로 자녀가 요구하는 바를 단지 만족시켜 주거나 적절한 타협을 보지 못하고 갈등 상황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우울한 어머니의 빈번한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은 결국 자녀의 저항과 공격성을 불러일으키고 어머니는 다시 그런 자녀를 통제하는데 더욱더 강압적, 비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어머니와 자녀간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악순

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울한 어머니의 아동들은 정신과적 증세와 심리사회적 행동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우울한 부모의 아동은 일반 통제집단에 비해 정신병리 확률이 2-5배까지 높으며(Welsh -Allis & Ye, 1988), 특히 정서장애의 위험이 높고, 품행장애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Weissman et al., 1987). Welner 등(1977)은 부모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 아동의 7%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25%가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보인 반면 일반 통제집단 아동에게는 우울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정신과적 진단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회적, 학업적,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부터 우울이나 불안 같은 내면화, 공격성과 주의력결핍 같은 외면화 부적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Beardslee, Bemporad, Keller, & Klerman, 1983). 특히 부모가 우울한 아동들은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많으며 사회적 기술 및 유능성이 상당히 부족하였고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모가 우울한 경우 통제집단에 비해 자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결과도 있어 우울증 부모의 학령기 자녀들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아동에게 거리감을 두고 더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비일관적인 양육행동 등 양육기술의 손상으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어 건강한 발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입증해 주고 있다.

### 3.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아동의 부적응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강덕귀, 2002), 반사회성과 비행(이정미, 2002), 우울(Peterson & Zill, 1986), 불안과 사회적 위축(Holden & Ritchie, 1991), 아동의 사회적 능력(Emery & O'Leary, 1984), 아동의 학업성취(조영란, 1993)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빈도가 많을수록 아동은 더욱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정감을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진다(Cummings et al., 1988). Fantuzzo 등(1991)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언어적이건 신체적이건 모두 아동의 내·외현화 문제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심하게 싸울수록 아동의 분노, 슬픔, 걱정,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며, 부부갈등이 아동 자신에 관한 내용일 때 아동은 부적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김소향, 1994).

Belsky(1981)는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부부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을 매개할 수 있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즉, 부부갈등으로 무기력해지고 지쳐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간섭과 적대감의 관계가 지속되면 아동은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 위축을 유발하게 된다. 즉, 부부갈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Dadds와 Powell(1991)은 부모가 보고한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Fincham과 Osborne(1994)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 경로의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녀 모두 내면화 부적응은 직접, 간접 경로가 둘 다 유의하였으며, 외현화 부적응은 여아의 경우에 간접 경로만 유의하고 남아의 경우에는 직·간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Jouriles 등(1987)은 임상 집단에서 부부갈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일반 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Jenkin과 Smith(1991)의 연구에서는 매개 경로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개 경로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소 불일치가 있는 가운데 Harold 등(1997)은 직접 경로, 간접 경로의 영향력의 차이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가 더 중요한지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에 있는 4개 초등학교 5, 6학년 637명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 연령은 30세 이상 48.1%, 40세 이상 50.1%, 50세 이상 1%이고,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77.5%, 대졸 이상 21%의 분포를 보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44.1%), 상업/서비스직(22.6%), 사무직(11.5%), 생산/기술/농업/단순노무직(8.8%), 전문직(7.5%) 순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5.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가족 10.2%, 한부모 가족 2.8%이었다.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11.3%, 100-200만원 미만이 34.1%, 200-300만원 미만이 28.7%, 300-400만원 미만이 14.8%, 400만원 이상이 11.1%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아동기 양육경험은 Buri(1991)가 회고적 측정도구로 개발한 PAQ(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권위주의적 양육경험과 허용적 양육경험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검토하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문항을 제거한 다음 권위주의적 양육경험 9문항과 허용적 양육경험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경험이 권위주의적이며 허용적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권위주의적 양육경험 .83, 허용적 양육경험 .60이었다.

##### 2)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선행연구에서 성인의 우울증을 평가하는데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SCL-90-R(Derogatis et al., 1976)의 우울척도 15문항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 3) 부부갈등

선행연구는 아동의 부적응에 위험요인으로 부부갈등을 보고하고 있어(이정미, 2002)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부부관계를 부부간의 갈등으로 측정하였다. 부부갈등은 Hudson(1997)의 PASNP(Partner Abuse Scale: Non Physical)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PASNP는 강덕귀(2002)가 변안·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총 15문항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Cronbach 값은 .92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 4)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천희영(1993)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에서 어머니가 자녀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상호작용을 평가할 수 있는 11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0으로 나타났다.

## 5) 아동의 부적응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Achenbach와 Edelbrock(1984)가 개발하고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7)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K-CBCL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위축, 우울,

불안, 신체화, 비행, 공격성, 충동성, 과잉행동의 34문항을 아동의 부적응 행동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는 .80이었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과 LISREL VII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VIII을 사용한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이 밖에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상관관계,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관련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1에서 .53 사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

<표 1>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권위주의적 양육경험	허용적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적응
권위주의적 양육경험						
허용적 양육경험	.15***					
우울	.11**	.18***				
부부갈등	.07	.16***	.53***			
통제적 양육행동	.28***	.37***	.37***	.25***		
아동의 부적응	.13**	.15***	.46***	.50***	.38***	
평균	1.76	1.77	1.95	1.36	2.11	1.45
표준편차	.54	.50	.53	.47	.45	.34

\*\*p<.01. \*\*\*p<.001.



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이론적 연구모형의 검증은 상관관계 행렬을 이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림 1〉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 한 결과  $\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chi^2=5.70, p>.05; df=4$ ) 자료가 가설적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의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는 1.0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는 .98,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02, NFI(Normal Fit Index)는 .99, NNFI는 .99로 나타나 연구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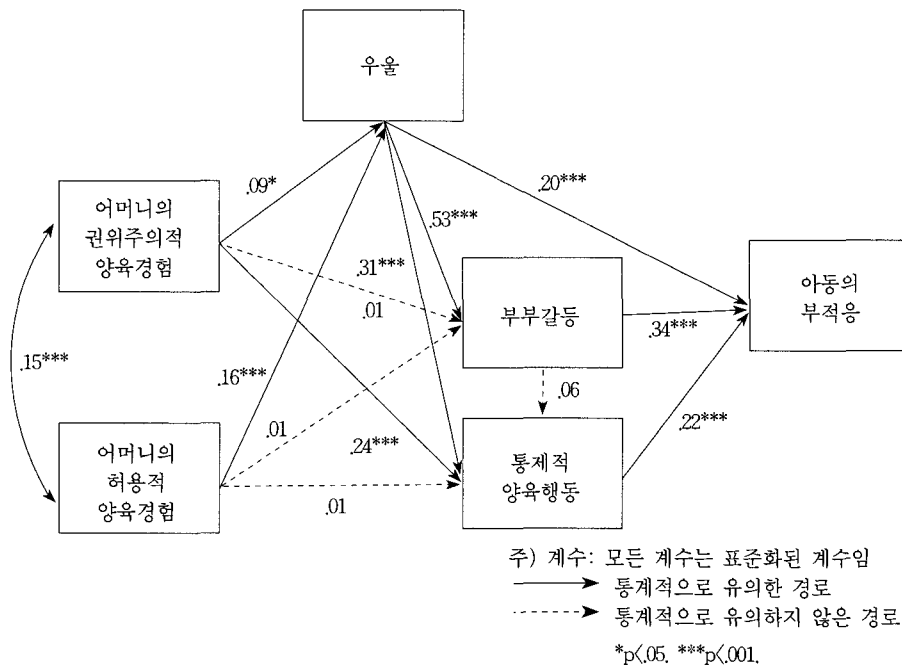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의 경로모델은 〈그림 2〉와 같으며 그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

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아동기 양육경험은 우울( $\gamma=.09$ )과 통제적 양육행동( $\gamma=.24$ )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10의 간접적인 효과를 주었다.

어머니의 허용적 아동기 양육경험은 우울에 .16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우울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07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 $\gamma=.53$ )과 통제적인 양육행동( $\gamma=.31$ ), 아동의 부적응( $\gamma=.20$ )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의 간접 효과는 .26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그림 2〉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표 2〉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의 직접·간접효과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속변인
권위주의적 양육경험	.09	·	.09	우울
	·	.05	.05	부부갈등
	.24	.03	.27	통제적 양육행동
	·	.10	.10	아동의 부적응
허용적 양육경험	.16	·	.16	우울
	.01	.09	.10	부부갈등
	.01	.06	.07	통제적 양육행동
	·	.07	.07	아동의 부적응
우울	.53	·	.53	부부갈등
	.31	.03	.34	통제적 양육행동
	.20	.26	.46	아동의 부적응
부부갈등	.06	·	.06	통제적 양육행동
	.34	.01	.35	아동의 부적응
통제적 양육행동	.22	·	.22	아동의 부적응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에 22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총효과를 통해 살펴 본 결과를 살펴 보면, 어머니의 우울에는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경험(총효과=.16)이 권위주의적 양육경험(총효과=.09)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부부갈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우울(총효과=.53)이었다. 어머니의 우울(총효과=.34)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우울(총효과=.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아동기 양육경험이 우

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집단의 사람들이 아동기 때 자신의 부모가 거부적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회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Parker, 1982)와 일치하며 권위주의적인 아동기 양육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에게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으로 양육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Whitbeck et al., 1991). 이는 어머니가 권위주의적인 아동기 양육경험으로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여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져 위축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적 아동기 양육경험으로 손상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은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부적응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위주의적 아동기 양육경험이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자신도 성인이 된 후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세대전이하여 다음 세대의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Sroufe (1988)가 지적한바와 같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는 아동중심의 양육행동보다 어머니 중심의 양육행동을 가지기 때문에 아동을 성인 수준으로 이해하여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세대의 아동부적응에 유력한 변수가 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부정적 양육행동을 줄이기 위해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닌 민주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어머니의 허용적 아동기 양육경험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우울 성향이 높은 여성일수록 어머니의 양육을 허용적으로 회고하였다는 이정숙(1997)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 어머니가 건강한 애정이나 일관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임적으로 자랐을 때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에 진정으로 수용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여 자신을 남에게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 위축되고 우울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허용적 양육경험은 부부갈등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부정적인 양육경험으로 인해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을 손상을 주어, 부부관계에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기술이 부족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에 있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기 보다는 쉽게 끝낼 방법을 찾게 되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제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국 자녀는 저항과 공격성을 표출하고 어머니는 다시 그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인 통제적 양육행동을 보이므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악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의 적응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에 권위주의적 양육경험보다 허용적 양육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아동의 행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아동에게 지시하고 소리 지르고 명령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아동에게 행동의 통제를 제시해 주지 않아 통제능력을 배양시키지 않는 허용적 양육행동이 우울에 더 위험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현재 심리적 특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Kavac 등(1984)은 우울한 아동은 다른 형태의 정신적 문제를 가진 아동보다 성인이 되었을 때 주요 우울장애를 일으킬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김현경(1996)은 아동의 우울증상은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어 우울증상이 심화되고 성인의 증상과 유사해지며 그 증상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더욱이 연구자들(Whitbeck et al., 1991)은 성인의 우울증은 어린시절 부모의 아동기 양육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증뿐만 아니라 아동기 우울증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울은 아동의 부적응에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과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우울한 사람이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낮은 자존감이나 좌절감으로 인해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갈등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누적된 갈등을 갖기 쉽다는 것과 일치하며(Cummings & Davies, 1994), 어머니가 우울한 경우 양육기술이 부족하고 그들의 자녀가 겪게 되는 손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Dodge(1990)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우울한 어머니는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에 갈등을 보이며, 비일관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의 반항심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대처를 하여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악순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의 부적응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내적인 세계에 갇혀 있어 자녀의 신호나 반응에 민감하지 못하여 감지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형태의 반응으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

울증 환자는 자신의 정신적 갈등을 통찰하지 못하고, 무의식을 배제하여 자신의 신체 이상만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한홍무 등, 1986) 우울증 치료에 있어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심리적 통찰을 주고 대인관계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부부갈등이 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특성인 우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양육행동을 통하지 않고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 혹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설명력이 너무 커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학자들의 쟁점이 되어왔다. Jouriles 등(1987)은 임상집단에서 통제적 양육행동이 부부갈등을 매개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일반 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한 Jenkin & Smith(1991)의 연구는 매개 경로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매개 경로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rold 등(1997)이 지적한바와 같이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영향직접 경로, 간접경로의 영향력의 차이보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가 더 중요한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갈등은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따라서 상담현장에서 부부갈등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숙지하여 부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이 개입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해주고 있다.

다섯째,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었고 여러 선행연구가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박경란, 1998). 이는 아동과 가장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지시하고 명령함으로 아동은 불안과 우울, 위축되기 쉬우며 반항적 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적응에 대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은 어머니의 우울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통하여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허용적 양육경험이 권위주의적 양육경험보다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경험은 현재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세대전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통제적 양육행동은 모두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우울이 가장 크며 다음이 부부간의 갈등,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은 대인관계를 통해 미치는 간접영향력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부적응을 주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나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 참고문헌

- 강덕귀(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김현경(1996). 아동의 학업성취도, 사회성, 성에 따른 우울 수준과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소현(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적응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1998). 고등학교학생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K-CBCL 아동 청소년의 행동평가척도. 중앙적성출판사
-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1977). 한국 가정의 훈육에 관한 세대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영란(1993). 부부갈등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 정근재(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487-502.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1). Behavior problems and competencies reported by parents of normal and disturbed children aged four through sixteen.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707-718.
- Barber, B. K. (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 Beardslee, W. M., Bemporad, J., Keller, M. B., & Loerman, G. L.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a major affective disorder: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32.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retherton, I. (1991). The roots and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In C. M. Parked,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9-32) London: Routledge.
- Buri, J. R. (1991). 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Assessment*, 57, 110-119.
- Cicchetti, D., & Toth, S. (199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and disorders of In D. Cicchetti, D., &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Vol. 3; pp.87-137).
- Cummings, E. M., & Cummings, J. L. (1988). The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Cummings, E. M., & Davies, P. (1994).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ummings, E. M., Ballard, M., & El Sheikh, M. (1991). Respons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gender, age, and mode of expression. *Merill-Palmer Quarterly*, 37, 543-560.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erogatis, L. R., Rickels, K., & Rock, A. F. (1976). The SCI-90 and the MMPI: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280-289.
- Dodge, K. A. (199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6.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574-595.

- Easterbrooks, A., & Goldberg, W. (1990). *Security of toddler-parent attachment: Relation to children's social personality functioning during kindergarten*. Chicago University Press.
- Eiden, R. D., Teti, D. M., & Corns, K. M. (1995). Ma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Fantuzzo, J. W., DePaola, L. M., Lambert, L., Marito, T., Anderson, G., & Suttons, S. (1991). Effects of interparental violence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competencie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58-265.
- Fendrich, N., Warner, V., & Weissman, M. M. (1990). Family risk factors, parental depression, and psychopathology in offsp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6*, 40-50.
- Field, T., Healy, B., Goldstein, S., & Gutherts, M. (1990). Behavior-state matching and synchrony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of nondepressed vs. depressed dyad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7-14.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M.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5). Attachment interview for adul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amberg, D. A. (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In Hamberg, D. A., *Today's children: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pp.171-180): Random House.
- Hammen, C. L. (1992). Cognitive, life stress, and interpersonal approaches to a developmental psychology model of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189-206.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inchliffe, N., Hooper, S., & Roberts, F. J. (1978). *The melancholy marriage*. New York: John Wiley.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Hudson, W. W. (1997).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allahassee, FL: Walmyr Publishing Company.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2*, 793-810.
- Jorgenson, D. (1985). Transmitting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replication and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males and fema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3*, 109-117.
- Jouriles, E. N., Barling, J., & O'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Kovacs, M., & Feinberg, T. L., Crous-Novak, M. A., Paulauskas, S. L. & Finkelstein, R. (1984). Depressive disorder in childho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229-237.
-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

-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Laub, J. H., & Sampson, R. J.(1988). Unraveling families and delinquency: A reanalysis of the Glueck's data. *Criminology*, 26, 355-379.
- Levitt, M. J., Weber, R. A., & Clark, C. M.(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 Martin, G., & Waite, S. (1994). Parental bonding and vulnerability to adolescent suicid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9, 246-254.
- Papero, D. V. (1990). *Bowen family system theory*. Boston: Allyn & Bacon.
- Parker, G. (1982).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affective symptoms: Examining for an hereditary link.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5, 575-61.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lantas, M. M., Prusoff, B. A., Brennan, J., & Parker, G. (1988). Parental representations of depressed outpatients from a U.S.A. sampl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149-155.
- Reifman, A. (1986). Emotional cutoff and the qualities of intimat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Rubin, K. H., & Mills, R. S. L.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00-317.
- Rutter, M., & Quinton, D. (1984). Family pathology and child psychiatric disorder: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In A. R. Nicol(Ed.), *Longitudinal studies in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New York: Wiley.
-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therapy and practice*. Northvale: Jason and Aronson Inc.
- Simo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and T. Nezworski(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pp.18-40). NJ: Erlbaum.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 Weissman, M., Leaf, P., & Bruce, M.L. (1987). Single parent woman. *Social Psychiatry*, 22, 29-36.
- Welner, Z., Welner, A., McGray, M. D., & Leonard, M. A. (1977).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inpatients with depression: A controlled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64, 408-413.
- Welsh-Allis, G., & Ye, W. (1988).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parents with recurr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17-28.
- West, M. L., Rose, M. S., & Sheldon, A. (1993). Anxious attachment as a determinant of adult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81, 422-427.
- Whitbeck, L. B., Simons, R. L., & Conger, R. D. (1991). The effects of early family relationships on contemporary relationships and assistance pattern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Gerontology*, 46, 5330-5337.

(2003년 4월 29일 접수, 2003년 7월 22일 채택)